

이혼에 관한 하나님 뜻이 궁금해요

Q 크리스천인 저는 믿음 없
는 남편의 핍박으로 인해
이혼을 고려할 만큼 심각한 상
황에 처해 있습니다. 제가 이혼
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
것일까요? 성경에 기록된 이혼
에 관한 하나님 뜻이 궁금해요.

A 고린도전서 7장에는 결혼과 이혼, 재혼 등에 대한 구체적
인 기록이 있습니다. 10절 이하를 보면 “여자는 남편에게서
갈리지 말고(만일 갈릴지라도 그냥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
합하든지 하라)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”고 했습니다. 할 수
만 있으면 이혼하지 말아야 하며, 만약 이혼을 했다면 다른 사람
과 결혼하지 말고 혼자 살거나 재결합하라는 의미입니다.
따라서 배우자로 인해 구원과 상관이 있을 만큼 신앙생활이 심
각하게 지장을 받는 경우 외에는 이혼하지 않아야 합니다. 남편
이 교회를 다니지 않더라도 아내와 함께 살고자 하면 믿음이 있
는 아내는 남편을 버리지 말아야 하지요. 남편이 교회에 나오고
아내가 나오지 않을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.

구약에서 말하는 이혼 증서의 의미

마태복음 19장 3절 이하를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아
와 시험하고자 “사람이 아무 연고를 물론하고 그 아내를 내어버
리는 것이 옳으니까?” 하고 물었습니다. 그러자 예수님께서 답
변하십니다. “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
한 몸이 될지나라 하신 것을 잊지 못하였느냐 이리한즉 이제 둘이
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
나누지 못할지나라”

이에 바리새인들은 “그러하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
어서 내어버리라 명하였나이까?” 하고 다시 묻습니다. 이때 예수
님께서 “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버림을
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
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
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나라”고 답변하셨습니다.

하나님께서 신명기 24장 1절에 ‘사람이 아내의 허물을 발견
하고 기뻐하지 아니하거나 이혼증서를 써주고 내어 보내라’고 말
씀하셨습니다. 이는 남자가 방탕하지 않기를 원하시며 여자가 보
호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마음을 담아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
련하신 것입니다.

구약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‘이웃에게 악을 행치
 말고 악한 일을 당해도 원수를 갚지 말라’는 하나님 뜻을 알려
 준다 해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. 성령이 마음
 안에 내주하는 성령 시대가 아니므로 인간의 힘으로는 그 마음을
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. 이로써 ‘눈에는 눈, 이에는 이’라는 율
 법을 주셔서 두려움 때문이라도 사람이 형제에게 악을 행치 않도
 록 하신 것입니다.

하지만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
 속해 주신 사실을 믿는 자의 마음에 성령이 오셔서 그리스도 예
 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. 하나님 말씀을 듣고
 배우며 불같이 기도하면 성령으로 영을 낳으며 성령의 열매를 맺
 을 수 있습니다. 이로 인해 모든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은
 물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.

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남녀가 한 몸이 되어 부부의 연을 맺으면
 변함없이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. 하지만 결혼 후
 에 남편이 어떤 이유로 아내와 함께 살기 싫은 마음이 된다면 그

마음이 바뀌지 않는 한, 같이 산다고 행복할 수는 없지요. 오히려
 서로 더 힘들어지고 불행해지므로 신앙이 없는 세상 사람이라면
 이런 경우에 차라리 헤어지는 것이 낫다고 생각할 것입니다. 실제
로 오늘날 이혼이 점점 늘어만 가고 있지요.

그러나 주 안에서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. ‘이렇게 살
 바에야 차라리 헤어지는 것이 낫다’고 생각한다면, 주 안에서도
 아직 영의 사랑을 이루지 못한 부부들은 얼마나 이혼을 많이 하
 겠습니까? 아내가 믿음이 있다면 주 안에서 남편을 잘 섬기고 하
 나님께 기도해 다시 행복한 가정을 회복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
 입니다. 아내가 열심히 영으로 들어가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받
 하면 남편의 마음도 얼마든지 되돌릴 수가 있습니다.

이혼이 가능한 경우에도 화평을 원하시는 하나님

고린도전서 7장 15-16절에 “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
 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속받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
 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 된 자여 네가
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네가 네 아내
 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” 말씀합니다. 곧 믿지 않는 배
 우자가 이혼을 원할 때, 무조건 이혼하는 것보다 화평을 좇음으
 로 믿지 않는 배우자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뜻인 것입
 니다.

단,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혼을 해도 가한 경우가 있습니다. 먼
 저 배 배우자로 인해 자신의 구원에 문제가 되는 상황입니다. 예를
 들어, 남편의 심한 핍박으로 인해 신앙생활을 할 수 없게 된 경우
 이지요. 만일 믿지 않는 남편이 교회를 택하든지 나를 택하든지
 양자택일을 하라고 할 때 핍박이나 이혼하는 것이 두려워 하나님
 을 배반하고 떠난다면 이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. 결혼 관계를
 유지하기 위해 신앙을 저버리거나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있어서
 는 결코 안 됩니다. 구원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.

그렇다하여 배우자로부터 조금만 핍박이 와도 ‘신앙생활을 위
 해 이혼 해야겠다’ 이렇게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. 아직 믿지 않는
 배우자가 정말 이혼을 원하는 것이 아닌데도, 순간적인 감정 등
 으로 인해 핍박을 하고 이혼을 하자고 말하는 경우가 있을 수
 있습니다.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배우자의 구원을 위해 노력해야
 합니다 (고전 7:12-14). 예를 들어 당분간 떨어져서 기도하는 것도
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. 처음에는 격한 감정으로 인해 이혼을 생
 각했다더라도 따로 떨어져 있다 보면 생각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
 입니다.

하나님께서 이혼을 해도 가하다고 하신 또 하나의 경우는, 마
 태복음 19장 9절에 “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내어 버
 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나라” 하신 예수님의 말씀
 에서 알 수 있습니다. 다시 말하면, 아내가 음행했을 때는 이혼을
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지요. 하지만 이 말씀을 아내가 음
 행한 경우 무조건 이혼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.
 호세아 선지자의 예를 통해 알 수 있듯이, 어떻게든 아내를 용서
 하고 함께할 수 있다면 그것이 더 좋은 것입니다. 물론 아내 편에
 서는 철저히 화개하고 돌아켜야 합니다.

“만일 어떤 형제에게
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
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나
 저를 버리지 않으며
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
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
 좋아하거나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
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
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
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
 남편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나니
 그렇지 아니하면
 너희 자녀도 깨끗지 못하나니
 그러나 이제 거룩하나라”
(고린도전서 7:12-14)